

- 주요 뉴스: 러시아, 전면적인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. 주요국 통화정책 영향에 관심
 - 연준의 주요 인사, 통화정책 결정 시 우크라이나 사태를 고려할 필요
 - 미국 2월 3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, 예상치 하회. 고용회복 지속을 의미
 -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, 우크라이나 사태로 통화정책 정상화 지연될 가능성
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연준의 통화긴축 지연 가능성 등이 영향

주가 상승[+1.5%], 달러화 강세[+0.9%], 금리 하락[-3bp]
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국채금리 하락에 따른 저가매수 유입 등이 배경
유로 Stoxx600지수는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 영향으로 9개월래 최저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증가로 2년래 최고치 근접
유로화와 엔화가치는 각각 1.0%, 0.5% 하락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통화정책 불확실성 확대 예상 등이 반영
독일은 미국과 유사한 이유로 6bp 하락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207.0원, +3.7원) 0.3% 상승, 한국 CDS 상승

		2/24일	2/23일	전일대비			2/24일	2/23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288.7	4,225.5	1.50%	국채 금리 10y	미국	1.96%	1.99%	-3bp
	유럽	438.96	453.86	-3.28%		독일	0.17%	0.23%	-6bp
	중국	3,430.0	3,489.1	-1.70%	CDS 5y	한국	28bp	27bp	1bp
	일본	25,971	휴장	-1.81%		중국	58bp	54bp	4bp
	한국	2,648.8	2,719.5	-2.60%	위험 지표	EMBI+	-	458	-
환율	달러지수	97.09	96.19	0.93%		VIX	30.32	31.02	-2.26%
	유로화	1.1192	1.1307	-1.02%		WTI유	92.81	92.10	0.77%
	엔화	115.53	115.01	-0.45%	원자재	구리	449.8	448.4	0.31%
	위안화	6.3292	6.3145	-0.23%		금	1,903.9	1,909.0	-0.27%
	원화	1,202.4	1,193.6	-0.73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러시아, 전면적인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. 주요국 통화정책 영향에 관심

- 러시아는 독립 국가로 승인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체제 전환을 목적으로 대규모의 전면적인 군사 작전을 선택. 일부 언론들은 러시아 병력이 이미 수도인 키예프의 북부 지역에 진입했다고 보도
-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강력한 제재로 러시아에 대응할 방침. 러시아 4개 주요 은행의 달러화 거래를 제한하고 자산을 동결. 또한 일부 주요 기업 및 단체를 제재 대상에 포함. 러시아의 군사력 억제를 위해 첨단기술 수출도 통제
- G7은 미국 달러화, 유로화, 파운드화, 엔화 등을 통해 러시아의 거래능력을 제한할 계획. 다만 미국과 NATO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파병 계획은 없다고 발표
-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세계경제가 당분간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심화 및 성장 둔화에 직면할 것으로 관측. BMO Capital Markets의 Ian Lyngen은 에너지 위기는 대부분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연결된다고 발언
- 다만 이날 연준과 ECB의 주요 인사들은 통화정책 결정 시 우크라이나 사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. 이에 일부에서는 성장둔화 우려가 심화되면 연준과 ECB의 통화긴축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될 수 있다고 전망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연준의 주요 인사, 통화정책 결정 시 우크라이나 사태를 고려할 필요

- 클리블랜드 연은 메스터 총재는 최근의 우크라이나 상황이 중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. 특히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여 성장을 저해할 수 있음을 반영하여 완화정책의 중단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
- 리치몬드 연은 바킨 총재는 지금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금리인상 경로의 조정을 유도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진단. 샌프란시스코 연은 데일리 총재는 대차대조표 축소는 예측 가능하고, 점진적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발언
- 애틀랜타 연은 보스틱 총재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3월 금리인상 시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. 고물가 지속 시 연내 4회 이상의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첨언

■ 미국 2월 3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, 예상치 하회. 고용회복 지속을 의미

- 해당 건수는 23.2만건으로 전주(24.8만건) 대비 감소.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 감소하면서 양호한 고용여건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

■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, 우크라이나 사태로 통화정책 정상화 지연될 가능성

- 홀츠먼 총재는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평가. 다만 통화정책 정상화 자체는 지속 추진될 것으로 예상. 아일랜드 중앙은행 마쿨로프 총재는 ECB가 3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인상 관련해서는 명확한 경로를 제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
- 그리스 중앙은행 스투나라스 총재는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졌기에 자산매입을 연말까지 지속하고 금리인상 가능 시기를 유연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. ECB 슈나벨 이사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경제전망에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

■ 영란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, 인플레이션에 신중한 방식으로 대응할 방침

- 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되 다른 경제 활동을 훼손하기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발언. IMF는 영란은행이 통화긴축 관련 명확한 신호를 발신해야 하며, 시장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고

■ 일본은행 총재, 즉각적인 통화긴축 전환은 불필요

- 구로다 총재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매우 낮다면서 해당 의견의 이유를 설명. 다만 휘발유, 식료품 등 최근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당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2/24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1월 시카고 연은 경제활동지수: 0.69, '21년 12월(0.07), 예상치(0.15)
- 미국 '21년 4/4분기 성장률(수정치): 7.2%, 3/4분기(2.3%), 속보치(6.9%)
- 미국 1월 신규주택판매(만채): 80.1, '21년 12월(81.1), 예상치(80.6)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2/25 현지시각 기준)

- ECB 라가르드 총재 강연, 미국 2월 미시건대 소비자태도지수, 1월 PCE 물가
- 미국 1월 내구재 수주, 개인소득, 잠정주택판매, 유로존 2월 소비자신뢰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- **미국 내 가격통제론,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완화 효과는 기대난** - The New York Times
(With Inflation High, People Are Talking About Price Controls. Is That a Terrible Idea?)
 - 최근 물가상승률이 큰 폭으로 치솟으면서, 일부 경제학자와 정책당국자들은 인위적 가격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. 하지만 가격통제는 단기적으로 물가상승 억제를 기대할 수 있으나, 장기적으로는 생산감소에 따른 공급부족으로 물가상승을 부추길 가능성
 - 또한 생산감소는 전반적인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문제도 초래. 2차 세계대전 당시 가격통제 정책 여파로 고용과 생산이 각각 12%, 7% 감소한 것으로 추산. 이에 가격통제는 독과점 제품과 식료품에 제한적으로 시행될 필요
- **미국 경제, 유가 급등이 성장 둔화를 초래할 전망** - WSJ
(Oil-Price Surge Threatens U.S. Growth)
 - 전세계적 수요증가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며 8년래 최고 수준. 유가 급등은 1월 소비자물가가 7.5%의 기록적인 상승률을 기록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
 - 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상승은 여타 부문의 소비지출 감소로 이어져 경제성장 둔화 요인으로 작용. 한편 일각에서는 연준이 성장둔화 방지를 위해 금리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
- **미국 주가 조정, 양호한 기업실적 등으로 과도한 우려는 불필요** - 블룸버그
(A Stock Correction Doesn't Mean the Market Was Wrong)
- **우크라이나 사태,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로 주요국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** - WSJ
(Ukraine's Fog of War Reaches Central Banks)
- **이탈리아 부채의 지속 가능성, 경제성장재정개혁ECB 통화정책 등이 관건** - Financial Times
(Growth, reform and ECB support are crucial to Italian debt sustainability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28, E-mail jsjeong@kcif.or.kr